

✚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으로 안부 드립니다.

6월인데 텍사스 날씨는 뜨거운 여름날씨가 시작되었고 비와 우박과 태풍이 잦은 곳입니다.

여기는 여름 특강으로 지난주부터 난민 영어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아프간 난민들은 저와 아프간 말로 대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프간 여성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이해도가 낮은 편이라 영어를 배우며

이해를 못하는 내용들은 아프간말로 해석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3,600만이 넘는 난민들을 위해 세계 난민의 날을 텍사스에서 2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Christian University 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Fort Worth 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난민의 날 행사를 합니다. 이날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재능기부로 음식으로 섬기게 됩니다.

World Relief 전체 코디네이터 가 지난주 저에게 만나자고 해서 오늘 Meeting 를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한달후에 이 일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저에게 제일 먼저

얘기한다고 하더군요. 그만두는 이유가 뭐 지 물었더니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쉬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로 이런 장애를 겪고

있는지 물었더니, 본인의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입양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서

입양되면서 좋지 않은 가정을 만나서 sexual abuse (성적학대) 당한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지금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S 자매는 결혼도 했고, 자신의 부모님도 소개를 해서

얼마전 만난적이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에 행복한 가정처럼 보였는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함께 점심

먹으러 가지 못했는데 앞으로 한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한국식당에 가자고 했더니 너무 좋아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미국 친구들이 한국음식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달라스 한국 식당에 가는 것이 저들의 소원입니다. (운전해서 1시간 거리입니다.)

또 저와 아주 친한 Cherry 가 2달동아 무척 아파서 저는 지난주 달라스 다녀오면서 북창동 순두부를 사다 드렸더니 자기병이 낫는 것 같다며 순두부 맛있다 아주 좋아했습니다.

제가 텍사스에 왔을 때 미국 친구들이 먼저 한국 음식,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제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분들을 통해서 저도 한국 식당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들 사이에서는(미국친구들) Korean Food 가 Healing Food 로 통합니다.

미국 어느 마켓에 가도 한국 고추장, 된장, 김치, 라면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에도 웬만한 마켓에 고추장과 한국라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교 한국을 통해 세계 선교의 길을 열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미주 KWMC 에서 한인 세계 선교 대회가 7월 8일 ~ 12일까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열립니다. 500여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하고, 300여 교회와 200명의 자원봉사가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선교대회를 통해 100명이 상의 선교후보생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난민 사역 강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은혜롭게 보고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중보기도 함께 나눕니다.

1. F W 이 지역의 난민들의 부흥을 위해, 아프간 소망교회 개척을 위하여.
2. Emad 형제 초청 수속이 잘 이루어지고 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3. 난민 사역으로 섬기는 ESL (영어학교), 다양한 난민사역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도록
4. 7월에 있을 KWMC 한인 세계 선교대회위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의 역사를 위하여